

독도에 '자비의 등' 밝히다

조계사, 10일 독도 등대에 지킴이등 20개 달아
한국 역사상 최초...순직 경비대원 위령제도

독도

우리 땅 독도에 연등이 걸렸다. 오랜, 아주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은 독도를 '지도상의 땅'으로만 생각해왔다.

발을 수 없었기에, 느낄 수 없었기에 머릿속 저편에만 있었던 땅. 그 땅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빛나는 연등이 밝혀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5월 10일 사회국장 범성 스님과 실무자 4명을 독도에 파견해 20여개의 '독도 지킴이 등'을 등대 주위에 설치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도를 방문한 경기도 평택 서암사 신도 10여명도 동참했다.

범성 스님은 "최근 불거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독도에서 의롭게 각자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경비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등을 설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출발 34시간 만에 입도(入島)

지난 3월 28일부터 독도 관광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관광객들, 그러나 막상 독도에 발을 디딘 사람은 많지 않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의 특성상 1년 중 40여일만 독도 입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계사 실무자들의 입도도 쉽지 않았다.

5월 9일 새벽 3시 서울을 출발, 오후 4시 40분경 독도에 도착했으나 파고가 높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5월 10일 오전에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 다행스럽게도 10일 오후 30분동안 독도에 입도할 수 있었다. 서울을 출발한지 34시간 만이다.

■30분동안 일사불란하게 진행

5월 10일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실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입도가 허락된 30분 동안 연등을 설치하고 위령재를 봉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사 경경서 관리계장과 심재선 주

임은 연등을 들고 등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재빠르게 설치한다. 등을 설치하고 나서는 예를 갖추고 장병들과 함께 고불문을 낭독했다.

"오늘 저희가 밝힌 등이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작은 등불이 되도록 서원드립니다. 우리를 침략한 저들이 저지른 만행의 과보를 짓고, 뜻을 세우다 부처님의 땅으로 가신 많은 영령들의 혼을 달래는 자비의 등불이 되도록 서원드립니다."

■5월18일까지 연등 불발허

김 계장이 등을 설치하는 사이 범성 스님은 독도경비대원, 불자들과 함께 독도를 지키다 순국한 5명의 영령들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

'관음시식'으로 위령제가 시작되자 독도를 찾은 불자들도 합장을 하며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독도경비대원 조준형 수경은 "얼굴도 모르는 선배들이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 역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예를 올렸다.

서암사 신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갑례(58)씨 역시 "스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위령재를 올리고 평화를 발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혔다.

위령재를 마치고 범성 스님은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독도경비대 부대장 석장준 경장은 "연등을 설치하고 위령재를 지내 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지원품까지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함께 위령재를 봉행한 불자들도 십시일반 주머니돈을 챙겨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사에서 설치한 연등은 5월 18일까지 등대에서 동해의 모든 생명들과 같이 숨을 쉬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온 인류의 '생명과 평화'



조계사 사회국장 범성 스님(왼쪽)이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를 기원하며 찬란한 빛을 밝혀게 된다.

■연등이 설치되기까지

조계사가 독도에 연등을 설치하게 된 것은 한 중무원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관리계장을 맡고 있는 김경석씨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조계사 시설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다운 발상이었다.

김씨는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중에 제안했다"며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신 것처럼 세계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불자로서 독도에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당초 해군 경비정을 이용해 조계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들과 신도회 관계자들이 함께 독도를 방문하려 했으나, 막판에 해군 측이 난색을 표해 결국 정기여객선을 통해 독도에 입도하게 됐다.

글·사진/독도=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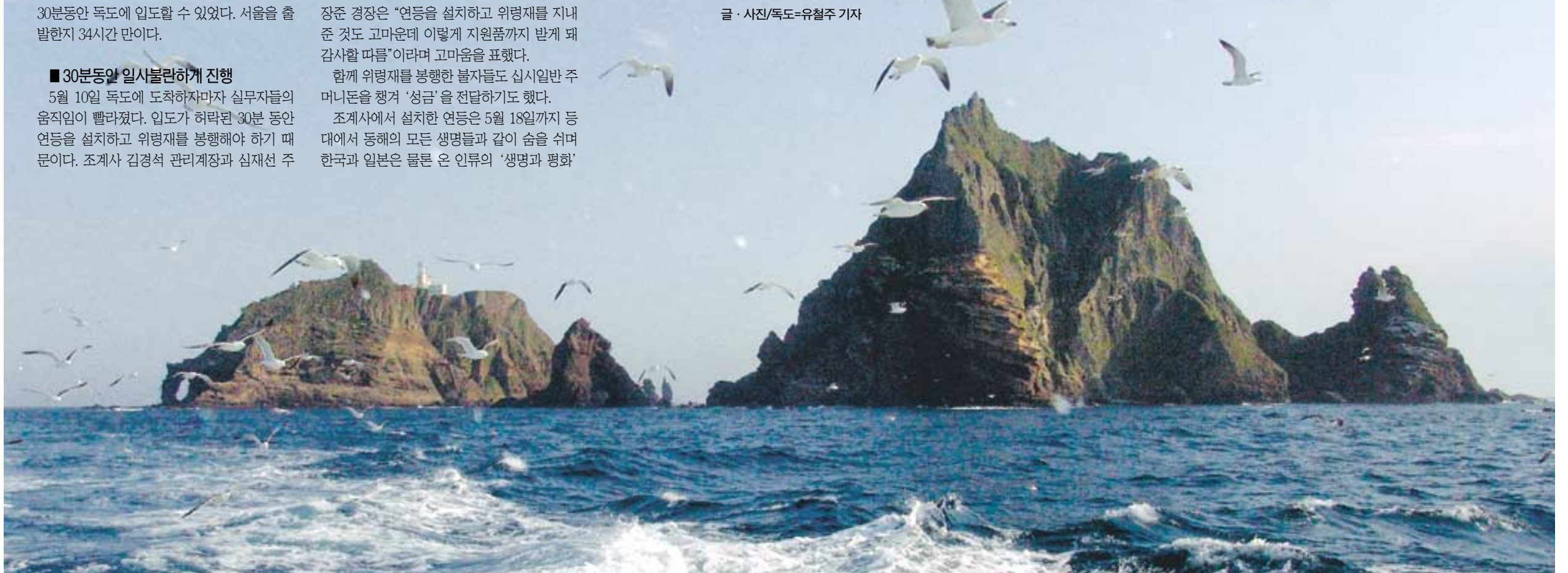
조계사 중무원들이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하는' 연등을 등대 주위에 달고있다.



평택 서암사 주지 서암 스님의 집전으로 치러진 위령재에는 조계사와 서암사 신도들이 동참해 넋을 기렸다.



함께 독도에 입도한 합방군인들이 독도수호를 결의, 구호를 외치며 독도가 우리땅임을 재확인했다.



소원성취 영험 부엉이길상도

불초 소승은 인연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행중에 있는 남자로서 영험한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질 꼭 지켜주기 바라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영세를 그려서 집없는 이와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워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없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업하는 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데 별다른 일 뜻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마도 한점 함께 드립니다)



구암 합장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영흥도 서래달마원 구암 합장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 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 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 수원 선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